

# 전문업계, 복수면허 취득 급증 대업종화 대비, 수주기회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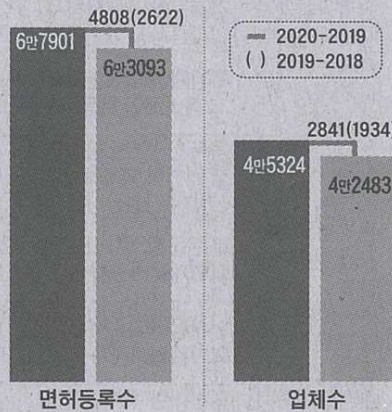
업체 수 증가폭보다 크게 높아  
금속창호·실내건축 분야 최다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방안의 일환으로 23개 전문업종을 10여 개로 통합하는 대업종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전문건설업체들이 복수면허 취득을 통해 대업종화에 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전문건설협회 등록분포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문건설 면허등록 수는 총 6만7901개로, 작년 3월(6만3093개)보다 4808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업체 수가 늘어난 것보다 훨씬 많은 증가세다. 지난달 전문건설업체는 총 4만5324개로, 작년 3월(4만2483개)보다 2841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러한 증가세는 대업종화 이슈가 불거지기 이전인 2018년에서 2019년 사이의 면허등록 및 업체 수의 증가세를 비교해보면 더욱 두드러진다. 실제 지난 2018년 3월에서 2019년 3월 사이 증가한 전문건설 면허등록 수와 업체 수는 각각 2622개, 1934개로 둘 사이의 격차가 688개에 불과했다. 하지만, 최근 1년간은 그 격차가 1967개로 2배 이상 급격히 벌어진 것이다.

전문건설업 면허등록·업체수 증가 추이  
2020년3월 ■ 2019년3월 ▨



특히, 업체 수보다 면허등록 수가 늘어난다는 점은 전문건설업체에서 기존에 보유했던 면허등록 외에 새로운 면허등록을 취득하는 경우가 늘어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단일 업종에 종사하는 업체들은 대업종화를 통해 다른 업종에 통폐합될 경우 고유의 전문 영역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수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크다”라며 “여러 면허를 미리 취득해놓는 방식으로 수주기회를 넓혀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금속창호공사업

의 신규 면허등록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금속창호공사업의 면허등록 수는 총 7695개로, 지난해 3월(7070개)에 비해 625개가 늘었다.

두 번째로 신규 취득이 많이 이뤄진 분야는 실내건축공사업이다. 실내건축은 지난해 3월 5574개에서 올해 3월 6177개로 603개 늘어났다. 이어 포장공사업이 작년 3월 2880개에서 지난달 3362개로 482개 증가해 3번째로 신규 면허 등록이 많았으며, 철근콘크리트와 조경식재는 각각 446개의 신규 면허가 등록됐다.

반면, 신규 면허 등록 수의 변화가 미미한 업종도 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면허등록 수가 34개로,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석도설치공사업과 준설공사업은 면허등록 수가 각각 12개와 29개로, 작년 3월보다 1개씩 추가되는 데 그쳤다. 철도궤도공사업은 지난해 3월 면허등록 수가 41개에서 지난달 40개로 오히려 1개 줄었다.

이 밖에도 수중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등은 신규 면허등록 수가 50개 미만으로 소폭 증가하는 수준에 그쳤다. 김희용기자 hyong@

건협, 기획위원·중소건설업육성위원 위촉



대한건설협회  
(회장 김상수)  
는 27일 제23대  
기획위원회 위  
원과 제20대 중  
소건설업육성



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건협은 지난 제1차 이사회에서 기획위원, 중소위원 등 자문위원에 대한 위촉 동의권을 회장에게 포괄 위임했고, 이에 따라 김상수 회장이 제23대 기획위원 18인과 제20대 중소위원 18인을 위촉했다.

김 회장은 기획위원장에 최태진 현도종합건설(주) 대표이사(왼쪽 사진)를, 중소위원장에 정동민 베텔건설(주) 대표이사(오른쪽)를 선임하고, 건협과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기획위원회〉** △최태진 현도종합건설(주)(위원장) △문경옥 강산종합건설(주) △조학봉 가나종합건설(주) △이윤범 호원건설(주) △강진산 선우건설(주) △김대영 (주)문화종합건설 △김상원 (주)터일건설 △천장우 영진건설(주) △김중섭 부성종합건설(주) △최수학 대

진종합건설(주) △조성래 (유)디알씨중원건설 △하종곤 예서건설(주) △이경범 희상건설(주) △이한성 대창건설(주) △박은상 (주)선두종합건설 △최상순 효창건설(주) △박정석 부경건설(주) △한세우 해유건설(주)

**〈중소건설업육성위원회〉** △정동민 베텔건설(주)(위원장) △손수길 장방종합건설(주) △박종호 상지건설(주) △오완석 (주)구룡종합건설 △라규환 (유)태림종합건설 △정형열 태림종합건설(주) △박영광 동우개발(주) △이철수 (주)도현건설 △장명진 (주)원진 △김수봉 태운건설(주) △장범식 하송종합건설(주) △유정선 명문건설(주) △김화진 상원건설(주) △류종원 그린종합조경(주) △김기춘 청솔종합건설(주) △박래창 (주)지성 △김석원 금성건설(주)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전문가위원)